

#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대학 구성원의 역할



김 한 중  
한경대학교/교수  
hanjoong@hknu.ac.kr

## 1. 머리말

현재 OECD-DAC(OECD내 개발원조위원회)가 분류한 ODA 수원국 중 1일 1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는 약 10억~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75%가 농촌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70년대와 유사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예산 50% 정도가 선진국의 원조예산이었던 시기와 유사한 재정적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이 정책사업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집행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농업전문인력의 확대, 농산업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세우고,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효과라는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

의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은 최근 OECD 국가들에 의한 재정원조 증대효과를 통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OECD 선진국과 NGO 단체들은 원조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선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8228;농촌개발이다.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이 국가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인구 중 54.5%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낮은 농업생산성, 농업인프라 및 정책미비, 영농기술의 낙후, 낮은 농기계 보급 수준 및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평균 1인당 600불 이하의 나라가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하여 농업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조속한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

치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농업 및 농촌개발이 없는 경제성장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문제, 불균형적인 식량자원의 유통구조로 인하여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화의 상당부분 지출이 불가피하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자원의 대외 유출로 이어져 결국 무의미하거나 경제성장의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내부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광범위한 빈곤, 불평등의 심화, 실업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주요 핵심 의사결정자들에게는 한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에 대한 노후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과 농업기술 이전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 농촌개발 분야 인재 양성과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의 농업기반 및 농업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해 개도국의 농촌개발정책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농촌개발 경험과 발전된 기술, 지식을 전수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제협력단(KOICA)은 수원국의 농축산개발사업 관련 부처 중견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중에서 기초지식과 학습능력을 갖추고, 학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로 영어로 수강이 가능하며, 연수 참가 후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국제협력단(KOICA)과 한경대학교는 개발도상국에서 파견되어오는 연수자들이 한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농촌 및 농업개발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학습과, 개발도상국의 국제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 지식, 국제관계 대응능력 및 리더십을 고루 겸비하고, 장기적으로 외교 및 경제협력 유대 강화를 위한 친한국적 국제개발 전문인력 및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 장기 석사학위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경대학교는 장기연수과정(석사학위과정)실시를 통해서 획득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자국의 빈곤퇴치, 농업경제발전 및 환경보전의 리더가 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류를 증진하고 농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협력체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개발, 국제경제기구(WTO)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국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반으로 자국내의 농축산 분야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양질의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대학의 국제협력 참여방안

### 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한경대학교의 국제 교류 사업 실적은 주로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 개별 교수의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발주 기관은 주로 KOICA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의 ODA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12건의 프로젝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몽골,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등 아프리카 지역이며, 농업 분야 8건, 사업 평가 2건, HRD센터 운영모델 및 건축설계

표 1. 한경대학에서 최근 수행한 PMC 사업개요 및 현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미얀마 흘레구 지역 농촌개발사업 PMC 용역	마을회관 건축 및 주택개량, 도로개선 등 인프라 개선, 소득증대(유기농, 축산, 소액금융)사업, 국내초청연수, 현지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수행	2008.12 ~ 2010.12	KOICA	사업완료
필리핀 HRD센터 건립사업 사업설계 및 건축기본설계용역	HRD 센터 운영모델 수립 및 프로그램 설계사업	2010.03 ~ 2010.11	KOICA	사업완료
베트남 한국개발경험 전수사업 실시 협의 및 PMC 용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노동 및 고용, 환경보호, 농업 및 농촌개발 등 주요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	2010.04 ~ 2011.12	KOICA	사업완료
필리핀 낙농축산 역량강화사업	가축개량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PCC 기관 및 연구진의 가축개량 관련 역량강화	2010.12 ~ 2012.08	KOICA	사업완료
우간다 농업지도자 연수원 건립사업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민소득 증대, 우간다 농업발전을 위한 리더십 배양	2011.10 ~ 2013.12	KOICA	진행중
카메룬 벼농사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 및 한국의 농촌개발과 빈곤퇴치 경험을 국제사회에 보급	2011.12 ~ 2013.12	한국농어촌공사	진행중
아프리카지역 농업/관개 2개 사업 종료평가용역	세네갈 포도리지역 관개개발사업, 짐바브웨 농기계 시험평가센터 개선사업 종료사업평가	2011.12 ~ 2013.06	KOICA	진행중
아프리카 4개국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협력사업형성 PMC용역	중점 지원분야 전략수립 및 기초조사를 통한 프로그램형 원조기반 마련	2012.03 ~ 2013.03	KOICA	진행중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PMC용역	몽골 국립농업대 산하 실험농장 및 실험실 지원, 교수, 연구원 등 연구역량 강화	2013.03 ~ 2015.09	KOICA	진행중
합계	9개 사업(7개 사업완료/2개 사업추진 중)			

1건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총 9건으로 사업 기간과 수원국가는 다음 <표 1>에 요약하였다. 이 PMC 방식의 사업은 교내 전임교수와 초빙·연구교수진과 전문가영역에서 별도의 파트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다.

#### 나. 학생의 봉사단 및 단기연수 참여

KOICA의 사업대상 국가에 학생단체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개발도상국가에 설치된 KOICA 사무소의 사업지구에 학생봉사단 파견을 위하

여 KOICA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0년부터 13개국에 6개학과와 재학생들이 봉사단 참여시 졸업여건이 불리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국내현장실습 학점(3)과 유사한 형태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6, 12, 18) 등을 신설하여 실습기간, 학과 내에서 해외현장실습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현장실습은 주로 축산, 작물재배, 농업일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해외현장실습을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해외 봉사활동

표 2. 한경대학교 KOICA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실적

파견학기	파견국	학과	직종	파견기간
2010-2	베트남	동물생명환경과학부	축산	2010. 8.~ 2011. 8.
	에콰도르	식물생명환경과학부	지역개발	
		동물생명환경과학부		
	몽골	원예학과	유아교육	
3개국	아동가족복지학과			
2011-2	네팔	원예학과	원예(채소재배)	2011. 8.~ 2012. 8.
	르완다	원예학과	원예(채소재배)	
		동물생명환경과학부	축산	
	베트남	동물생명환경과학부	축산	
	에티오피아	원예학과	원예(작물재배)	
		동물생명환경과학부	축산	
	엘살바도르	원예학과	원예(채소재배)	
방글라데시	생명공학과	축산		
	동물생명환경과학부			
6개국	3개학과			
2012-1	우즈베키스탄	식물생명환경과학부	원예(채소재배)	2012. 3. ~ 2013. 2.
	1개국	1개학과		
2012-2	에콰도르	식물생명환경과학부	농업(일반)	2012. 8. ~ 2013. 8.
		동물생명환경과학부	작물재배(일반)	
	1개국	2개학과	축산	
2013-1	볼리비아	동물생명환경과학과	축산	2013. 2. ~ 2014. 2.
		생명공학과		
	세네갈	식물생명환경과학과	농업	
	에티오피아	원예학과	작물재배	
		식물생명환경과학과	축산	
3개국	생명공학과			
2013-2	에콰도르	4개학과	농업(일반)	2013. 9. ~ 2014. 9
		원예학과		
	카메룬	식물생명환경과학과	축산	
		동물생명환경과학과	환경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작물재배(일반)	
	세네갈	원예학과	작물재배(일반)	
	우간다	식물생명환경과학과	작물재배(일반)	
방글라데시	생명공학과	축산		
	동물생명환경과학과			
5개국	5개학과			

후의 자기계발과 비전 수립을 돕고 있다.

한경대학교 재학생이 해외로 가는 경우 외에도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외국 공무원,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연수과정으로 초청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원

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은 다음 <표 3>과 같다. 단기연수과정은 <표 3>과 같이 PMC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서 추후 일반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나타



발 인프라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경대는 농업·농촌분야,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경험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농업·농촌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농업 특성화 중점연구소와 산·학·관·연 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서 산학협력단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사업센터의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소, 연구센터의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실제 국제개발협력의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요 대학(필리핀, 베트남, 중국,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카메룬 등의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고, 농업기술과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공동 연구, 협력사업, 학생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학생을 통한 현지국가의 농업 현황 파악 및 당면 해결이 요구되는 과제 인식, 석사과정 연수생들의 상호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주요 기관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ACCP기준원, 축산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 기타 많은 농업관련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농업기술에 특성화된 기술 역량과 대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 3. 한경대학교의 (KOICA) 국제협력 대학원 운영 체계

#### 가.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KOICA 장기연수과정 운영 실적

장기석사학위과정 운영 현황은 2010.7 월 신입생부터 2014.9 졸업예정인 차수를 포함하여 운영실적은 다음 <표 4>와 같다. 학위과정 연수의 당초 목적인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석사학위 취득을 통하여 수원국의 전

표 4. 장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구 분	연수인원 (명)	국가수 (개국)	연수기간
1기	20	17	2010. 7. 27 ~ 2011. 9. 29 (14개월)
2기	20	16	2011. 7. 27 ~ 2012. 9. 29 (14개월)
3기	20	17	2012. 7. 27 ~ 2013. 9. 29 (14개월)
4기	20	20	2013. 7. ~ 현재 (14개월 예정)

문가로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한경대학교에서는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 전담교수, 주임 및 책임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여러 차수를 거치면서 현재는 수원국의 특성 및 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상당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기연수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고 있다. 평가 결과 현재 한경대학교는 농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과정으로 육성 발전 필요하며, 전반적인 연수생 관리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국제개발협력대학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전담교원 충원 및 전문 인력 역량을 갖춘 강사 보완, 전공 과목에 대한 실무교육 내용 강화, 연수생의 교육 완료 후 자국내에서의 활동성과 우리나라와의 연계관리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홍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개발협력과정을 준비하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수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봉사, 한국의 문화체험등도 비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적용하였다. 그 사례는 다음 사진들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 서울 가락시장 현장학습



〈그림 3〉 외국인연수생 양로원 봉사



〈그림 4〉 상호 기관간의 업무협약체계

#### 나. 대학원 과정의 운영체계 및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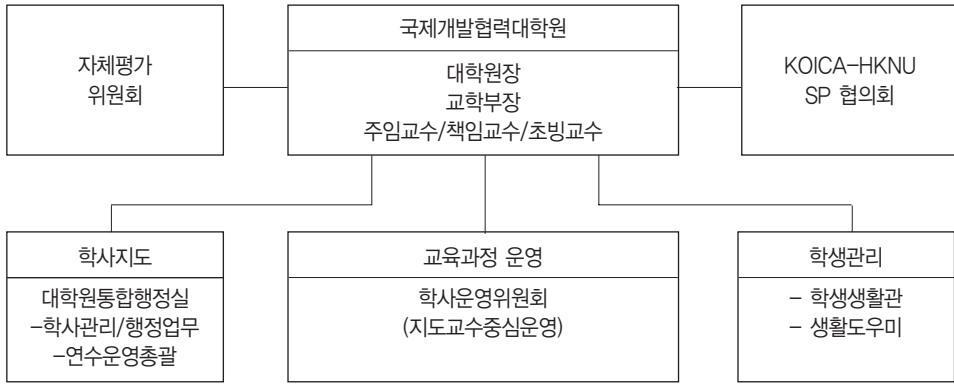
한경대학교는 KOICA와의 업무협약 체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방안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ICA 지원 국제개발협력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연수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에 활용되는 모니터링/ 평가 5대 요소에 기초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연수생의 학업, 생활, 현장실무 교육 및 견학등의 활동을 위해서 KOICA SP 연수전담조직과 지원단을 다음 그림과 같이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3. 단기연수 프로그램 실적

구분	평가내용
타당성	- 본 연수/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연수생)의 교육적 요구(수요)와 제공된 프로그램의 부합성 여부 - 연수 사업 담당기관(한경대학교)의 연수훈련 조직과 시설, 훈련 경험 및 담당 교수의 자질 평가
효과성	- 교육 목표의 양적, 질적 달성도: 졸업생 수, 성적 분포, 우수 논문 작성
효율성	- 연수 훈련 투입요소의 양과 질 평가(학생 평가, 교수 평가) - 전체 예산 중 실험 실습비(현장 실습 포함)의 적절한 안배: 실험 실습비 사전 확보
파급효과	- 교육/훈련생의 교육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파급 효과 측정: · 프로그램 중 잘된 부분 · 프로그램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지속성	- 장기적으로 본 연수교육 훈련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 석사과정 이수자의 상급 학위과정 요청 여부 · 교내에서 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호응도 여부



〈그림 5〉 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운영체계

#### 4. 결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원조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자국의 농촌개발을 이루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맞물려서 대학에서도 이들을 수용하여 선진기술전수와 교육시스템을 전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은, 농업·농촌 개발과 국토개발을 위해서 ‘잘살아보세’와 같은 국민의식개혁과 정부의 적재적소의 행정·재정적 지원,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서 시행한 조세제도 개편 과정의 범국민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몇 번의 ODA 사업 참여과정과 외국인 장기연수과정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제는 당사국의 국민의식 개혁, 즉,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함께 잘살아보세’와 같은 합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기획: 배승중